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國民倫理敎師의 政治意識에 관한 硏究

指導敎授　高　性　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康　炳　浚

1989年度

濟州道 國民倫理敎師의 政治意識에 관한 硏究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提 出 者　康　炳　浚

指導敎授　高　性　俊

1989年　　月　　日

康炳浚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9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金恒元

副審 康根亨

副審 [illegible]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정치의식의 개념과 조사연구 동향 ····· 5

1. 개념 정의 ····· 5

2. 조사연구 동향 ····· 7

Ⅲ. 연구 방법 ····· 10

1. 개념모형의 설정 ····· 10

2. 측정 도구 ····· 10

3. 표 집 ····· 11

4. 자료 처리 ····· 12

Ⅳ. 결과 및 논의 ····· 13

1. 한국의 정치·경제 ····· 13

2. 통일문제 ····· 24

3. 공산주의 ····· 43

4. 국민윤리 교육 ····· 59

Ⅴ. 요약 및 결론 ····· 64

참고문헌 ····· 67

Abstract ····· 71

부록 : 설문지 ····· 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연 구 의 목 적

흔히 한국이 처한 내외 환경의 변화를 혼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식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적 변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는 국민공동생활의 원리를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그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국민윤리교육[1]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그 실천 과제를 시급히 모색케 하고 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의 흐름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세계 제2차 대전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냉전질서를 새로운 다원적 레땅뜨 질서로 변화케 하고 있는 흐름은 바로 공산체제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0세기에 있어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준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이 이념의 실현을 내세우고 출현한 공산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공산체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생산력의 저하에서 오는 경제의 침체 현상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의 침체가 초래하는 노동자의 빈곤 문제는 바로 공산체제의 정통성의 위기까지 가져오고 있다.[2]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공산체제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이루어지는 「페레스트로이

---

1) 박용헌, "국민윤리학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국민윤리학」 (서울: 박영사, 1982), p.48.

2) 즈비규뉴 브르진스키 저, 명윤희 역, 「대실패: 공산주의 등장과 소멸」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40.

카J라는 이름하의 체제 개혁과, 폴란드와 헝가리를 위시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탈공산주의 경향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체제가 금세기와 더불어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쇠퇴해 가고 있음을 뜻한다. 또 한 가지 국제 환경에 있어 변화의 큰 흐름은 새로운 데땅뜨시대의 전개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공존-공생하는 관계를 모색하게 됐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간에 서로의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의 개혁은 서방과 승산없는 경쟁정책을 포기하고 생산력 중시를 위한 과감한 대서방 협조정책을 추진케 함으로써 새로운 데땅뜨 질서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국가들의 대외정책 변화는 반공국가인 한국으로 하여금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사회는 그동안 억제되었던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각종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심한 혼란에 처해 있다. 민주화란 자기 운명에 관련되는 사항에는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의식의 보급에서부터 시작된다.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과거와 달리 모든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만민 평등의 사상에 근거해 공동체의 운명은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정치는 한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질서회복을 통한 발전이라는 우파적 도전(극우의 도전),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극좌의 도전, 민주화와 안정·

3) 김우태, "대공산권 변화와 이념교육의 방향," 한국국민윤리학회편, 「북한체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9), pp.229-230.

질서를 함께 요구하는 다수의 중간 집단의 압력까지 각종 상반되는 요구를 앞세운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는 경영 참여 요구를 비롯한 제 주장을 앞세운 노사분규에 직면해 성장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퇴조의 길을 걷고 있다.

민주화의 흐름은 그동안 억눌렸던 통일 논의의 열기를 높여주고 있다. 정부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도, 재야 민중세력도 민중통일론을 들고 나오고 있으므로 통일론은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에 이른 감이 있다. 이제 통일문제는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의 견지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긴요 문제로 부상한 감이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편적인 변화 흐름으로서의 국제화와 정보화 역시 한국사회가 심한 부적응 현상을 겪게 하고 있다. 국가의 범위를 넘지 않았던 한국인의 삶의 공간이 이제는 국경 넘어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은 한국인들에게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시민 의식"을 갖게끔 하고 있다. 통신, 교통, 기술에 있어 정보전달에서 사실상 시간과 공간을 없애주고 있는 정보화도 나와 남, 우리편과 적, 이웃과 낯선 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흐름들은 지금까지의 국민윤리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특히 종전까지 지속해온 냉전 시대의 반공논리와 이에 입각한 반공 내지 통일안보교육이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찬양 일변도의 정치, 경제교육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주도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국민윤리 교과담당 교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통일 문제, 공산주의의 변화, 국민윤리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 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국민윤리 교사의 정치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윤리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정치의식의 개념과 조사연구 동향

1. 개념 정의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이와 유사한 개념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어떤 시각에서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간결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외국의 경우,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정치문화, 정치적 성향, 정치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태도 등 유사한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치 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함의영(咸義英)에 의하면 정치의식은 일반 국민의 정치인, 정치현상 또는 정치문제에 대하여 갖는 인식, 평가, 태도 등을 총칭하고 있다.[4]

이러한 의미의 정치의식은 미국에서 개념화된 정치문화에 가깝다고 하겠다.[5]

신순기(辛舜基)는 정치의식이란 사람들이 정치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또 특정의 정치문화에 대하여 가진 사물을 보는 방법, 사고방식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행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함의영, "정치의식의 민주화," 「사회과학논집」 제 5 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p.63.

5) 정치문화에 대한 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강근형, "정치문화의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2, pp.20-27.

양식을 의미한다고 했다.[6]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정치의식을 정치적 사상(政治的 事象)과 정치문화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 평가, 태도의 총칭이며 정치적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되는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의 정신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치의식과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문화의 개념정의를 보면 알몬드(Almond)와 파우엘(Powell)은 정치문화란 한 국가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태도, 믿음,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한 국가의 정치문화는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의 특정한 분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8] 정향(orientation)이란 알몬드와 버바(Verba)에 따르면 대상과 관계의 내면화된 측면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 — 정치체계와 그 역할, 역할 담당자,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지식과 신념 ② 정의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 — 정치체계와 그 역할, 인사 및 업무수행에 대한 느낌 ③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 — 정치적 대상에 대한 판단과 의견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9] 파이(Pye)는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주고 그리고 정치체계 내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부여하는 태도, 신념 및 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신숙기(辛舜基),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9집, 1972, p.220.
7) 정인흥 외 「정치학 대사전」 (서울 : 박영사, 1972), pp.1348-1350.
8) Gabriel A. Almond and G.Bingham Powell, Jv. Comparative Politics System : Processes and Policy (2nd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강근형, 전게논문, pp.20-21 재인용
9) G. A. Almond and Sy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14-15. 강근형, 상게논문, p.21.

정의 집합이다라고 정의했다.[10]

정치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며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마시알라스(Massialas)는 정치태도를 정치문화의 한 양태(樣態)로 보고 있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적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정치질서에 대한 인지적 정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11]

캠벨(Campbell)은 정치태도를 "정치대상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12]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개념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을 "한국의 내외적 정치 현상이나 정치대상에 대해 교사들의 갖는 인식, 평가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조사 연구 동향

그동안 국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많이 있으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

10) Lucian Pye. "Political Culture," David L. Sh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2, 1980, p.218. 강근형, 상게논문, pp.22 재인용.

11) Byron G.Massials,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1969, p.9.
김항원 외, "제주도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24 집 (1986) p.341에서 재인용.

12) D.T.Campbell,"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 47, 1950, pp.15-38. 김항원 외, 상게논문 재인용.

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13]

국민윤리와 관련된 교원에 관한 정치의식 조사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최초의 조사가 이용필·정세구의 "대학국민윤리교수의 정치의식 및 국민윤리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1979)이다. 이 조사는 국민윤리 교과영역의 중요 부분인 통일문제, 북한문제, 공산주의문제 등에 대해 대학의 국민윤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평가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시홍의 "제주도 교원의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1986)가 있다.[14] 이 조사는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제주도 교원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했다.

국민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조사연구는 제주대학 통일안보 연구소가 1979년에 실시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가 처음이다. 이 조사는 특히 통일안보 문제에 대한 일반 의식과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된 의식 등 두 차원에서 도민의식을 파악하고 있다.[15]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는 김항원의 연구가 몇 편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항원은 1980년에 "제주도민의 반공의식 고찰"이란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1983년의 "한국 대학생의 대 북한관 연구" 등을 발표했다.[16] 김항원은 일련

13) 국민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학생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항원, "한국 대학생의 대 북한관 연구" 「민족문화와 국민정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353-421.

14)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편, 「이념과 현실」 제4집, 1986, pp.41-98, 참조.

15) 제주대학 통일안보연구소,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 1979, pp.239-296.

16)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반공의식 고찰," 「월암 김종업교수 화갑기념논총」, 1981, pp.293-324.
김항원, "한국 대학생의 북한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민족문화와 국민정신」, 1983, pp.353-421.
김항원 외, "제주도 대학생의 정치의식 조사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24집, 1986, pp.339-413.

의 조사에서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라고 평가되는 박용헌 외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1980)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해 왔다.[17] 이 밖에도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시도한 김치홍의 연구와 강덕부의 연구가 있다.[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7) 박용헌 외,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99-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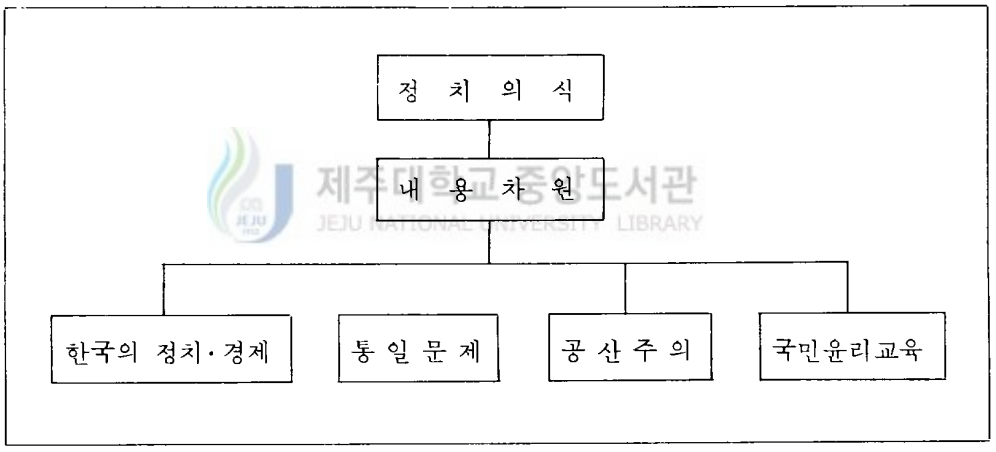
18) 김치홍,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통일안보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강덕부, "제주도 중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Ⅲ. 연 구 방 법

1. 개념모형의 설정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포괄적, 복합적인 정치의식의 인식 대상중에서 내용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통일문제, 공산주의, 국민윤리교육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표-1〉 정치의식의 개념모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측정 도구

측정되는 차원별로 32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은 기존 연구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정치의식 28문항 배경조

사 4문항 등 총 32문항이다. 이 문항 중 본 연구의 중핵을 이루는 정치의식 진단을 위한 28문항을 대상 내용 영역별과 의식성향 차원별로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차 원	내 용	문 항 수	계
한국의 정치·경제	정 치	6	6
	경 제	2	2
통 일 문 제	남북한 비교	2	2
	통 일	8	8
공 산 주 의		5	5
국민윤리교육		5	5
계		28	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표 집

대상은 제주도내 초·중등의 교원중 국민윤리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당해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사회교과목 자격증을 갖고 국민윤리를 담당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의 경우 36명, 중등의 경우 122명을 합하여 158명이었다. 표집은 1989년 10월 4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으며 설문지 배부·회수 방법은 각 관련 학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실시 결과는 다음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설문지를 실시하여 회수된 수는 108명이었다.

〈표-3〉 초·중등별 실시대상자 수와 회수 상황

대 상	실시 대상자수	회 수	회 수 율 (%)
초 등	36명	26 명	72.2%
중 등	122명	82 명	67.2%
계	158명	108명	69.7%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치는 평균(M), 백분비(%), X^2 검증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Ⅳ. 결 과 및 논 의

개념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의식은 주로 내용 차원에서 만들어진 34 문항에 대한 표집대상들의 반응 결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대상의 배경변인별(背景變因別)로 有意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여, 넷째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 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1. 한국의 정치·경제 차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의 정치·경제 차원은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그것을 성향 차원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가. 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을 내용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의식내용은 현 시국에 대한 평가, 민주화에 대한 전망, 한국 정치의 선결문제, 바람직한 정부 형태,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제주도의 선결문제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현 시국에 대한 평가

교원들의 현 시국의 흐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보면 약간 불안정(50.8%), 매우 불안정(22.2%), 약간 안정(14.9%), 그저 그렇다.(11.2%), 매우 안정(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73.0%가 현 시국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는 〈표-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4〉 현 시국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우 안정	약간 안정	그 저 그렇다	약 간 불안정	매 우 불안정
①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8	1 (0.9%)	16 (14.9%)	12 (11.2%)	55 (50.8%)	24 (22.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민주화에 대한 전망

교사들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보면, 다소 민주화(75%), 크게 민주화(13%), 별다른 변화 없을 것(11.1%), 오히려 후퇴(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는 〈표-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5〉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크 게 민주화	다 소 민주화	별다른 변화 없을것	오히려 후 퇴	계
②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108	14 (13%)	81 (75%)	12 (11.1%)	1 (0.9%)	108 (100.0%)

(2)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			
						크 게 민주화	다 소 민주화	별다른 변화 없을것	오히려 후 퇴
성 별	남	65.7	13.6	3	$P<.005$	16.9	78.9	4.2	0
	여	34.3				5.4	67.6	24.3	2.7
연령별	30 미 만	31.5	7.29	9	$N.S$	8.8	73.5	14.7	3.0
	31-40세	33.3				11.1	75	13.9	0
	41-50세	25.0				22.2	70.4	7.4	0
	51-60세	10.2				9.1	90.9	0	0

(계속)

(표 5, 2) 계속)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크게 민주화	다소 민주화	별다른 변화 없을것	오히려 후퇴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0.2	9	N.S	4.8	80.9	9.5	4.8
	3-5 〃	9.2				10.0	60.0	30.0	0
	5-10 〃	30.6				12.1	78.8	9.1	0
	10년 이상	40.7				18.2	72.7	9.1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5.8	9	N.S	15.4	73.1	11.5	0
	중학교	50				9.3	72.2	16.7	1.8
	고등학교	26				17.9	78.6	3.5	0

배경변인별로 有意한 차가 나타나는 것은 성별($P<.005$) 뿐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거의 대부분(95.8%)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데 비하여 여자는 73%만이 낙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한국 정치의 당면 과제

교사들의 한국 정치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의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이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보면 민주화 추진(53.7%), 이념 대립의 해소(17.6%), 복지정책의 실시(17.6%), 통일기반의 조성(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는 〈표-6〉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6〉 한국 정치의 당면과제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민주화 추진	이념대립의 해소	복지정책의 실시	통일기반의 조성	기 타
③ 현재 우리의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8	58 (53.7%)	19 (17.6%)	19 (17.6%)	8 (7.4%)	4 (3.7%)

4) 바람직한 정부 형태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어떤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형태로 다음의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요?"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는 〈표-7〉에 제시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7〉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직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간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④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다음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8	73 (67.5%)	4 (3.8%)	31 (28.7%)	0 (0%)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직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간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성별	남	65.7	6.1	3	N.S	74.7	2.8	22.5	0
	여	34.3				54.1	2.7	43.2	0
연령별	30 미만	31.5	9.4	9	N.S	64.7	5.9	29.4	0
	31－40 세	33.3				61.1	0	38.9	0
	41－50 세	25.0				77.8	7.4	14.8	0
	51－60 세	10.2				72.7	0	27.3	0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8	9	$P<.05$	62.0	0	38.0	0
	3－5 〃	9.2				90.0	10.0	0	0
	5－10 〃	30.6				57.6	3.0	39.4	0
	10년 이상	40.7				72.8	4.5	22.7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6.0	9	N.S	53.8	7.7	38.5	0
	중학교	50				74.1	1.9	24.0	0
	고등학교	26				64.2	3.6	28.6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7〉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직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67.5%), 의원 내각제(28.7%), 간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3.8%) 순으로 반응을 보여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교육경력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P<.05$),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제

의 선호를 보면 교육 경력이 3-5년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교육경력 10년 이상(72.8%), 3년 이내(62.0%), 5-10년(57.6%)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는 교육경력 5-10년(39.4%), 3년 이내(38.0%), 10년 이상(22.7%), 3-5년(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교육경력 3-5년된 교사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교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5)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한 지지도

교사들의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진보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57.4%), 아직 시기상조다(38%), 필요하지 않다(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8〉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필요하지 않다	기 타
⑤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	62 (57.4%)	41 (38%)	4 (3.7%)	1 (0.9%)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필요하지 않다	기타
성별	남	65.7	6.0	3	N.S	52.1	42.3	5.6	0
	여	34.3				67.6	29.7	0	2.7
연령별	30 미만	31.5	21	9	$P<.05$	73.5	23.5	0	3.0
	31-40 세	33.3				63.9	33.3	2.8	0
	41-50 세	25.0				33.3	63.0	3.7	0
	51-60 세	10.2				45.5	36.4	18.1	0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22.5	9	$P<.01$	76.2	23.8	0	0
	3-5 〃	9.2				70.0	20.0	0	10.0
	3-10 〃	30.6				66.7	30.3	3.0	0
	10년 이상	40.7				38.6	54.5	6.9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7.0	9	N.S	46.2	46.2	0	7.6
	중학교	50				57.4	37.0	5.6	0
	고등학교	26				64.3	32.1	3.6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8〉에 의해서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를 보면 연령별($P<.05$)과 교육 경력별($P<.01$)로 有意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30세 미만(73.5%), 31-40세(63.9%), 41-50세(33.3%), 51-60세(45.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 미만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으며 40대는 진보정당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63.0%) 보는

교사가 $\frac{2}{3}$ 가까이 되고 있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교육경력 10년 이상(38.6%)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교사가 반 이상이 되고 있다.

6) 제주의 지방자치제의 해결문제

교사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 해결 문제는?"이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발정책의 참여 문제(43.4%), 개발이익의 환수문제(32.3%), 토지소유 문제(13.9%), 농어촌 문제(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75.9%)에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9〉 제주의 지방자치제의 해결 문제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토지 소유문제	개발정책의 참여문제	농어촌 문제	기 타
① 제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그 해결이 기대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8	35 (32.3%)	15 (13.9%)	47 (43.4%)	6 (5.6%)	5 (4.8%)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 구분(%)				
						개발이익의 환수문제	토지 소유제	개발정책의 참여문제	농어촌 문제	기타
성별	남	65.7	8.9	5	N.S	36.9	9.9	43.7	5.6	4.2
	여	34.3				24.3	21.6	43.3	10.8	0
연령별	30 미만	31.5	17.2	15	N.S	35.3	23.5	29.4	5.9	5.9
	31-40세	33.3				30.5	13.9	44.4	5.6	5.6
	41-50세	25.0				33.3	7.4	51.9	7.4	0
	51-60세	10.2				27.3	0	63.6	0	91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20.1	15	N.S	38.1	23.8	38.1	0	0
	3-5 〃	9.2				60.0	20.0	20.0	0	0
	5-10 〃	30.6				18.2	18.2	45.5	12.1	6.0
	10년 이상	40.7				34.2	4.5	52.3	4.5	4.5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31.3	15	P<.01	34.6	7.7	46.2	11.5	0
	중학교	50				27.8	24.1	40.7	3.7	3.7
	고등학교	26				39.3	3.6	46.4	7.1	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는 것은 재직학교별($P<.01$) 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학교구별에 관계없이 개발정책의 참여 문제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개발이익의 환수문제이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토지 소유 문제(24.1%)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의 교사의 경우 전체 반응 결과와는 달리 개발이익의 환수문제(35.3%)가 개발정책의 참여문제(29.4%)보다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경력이 3-5년 이내의 교사들도 개발이익의 환수문제에 60%가 반응

을 보이고 있어 젊은 교사들이 그 동안의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이익의 환수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나. 한국의 경제

교사들이 한국경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한국경제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표-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간 어려운 상황(46.3%), 매우 어려운 상황(25%), 약간 좋은 상황(15.7%), 그저 그렇다(12.1%), 매우 좋은 상황(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응이 71.3%나 되고 있다. 배경요인별 각 집단의 반응 경향은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10〉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우 좋은 상황	약간 좋은 상황	그 저 그렇다	약 간 어려운 상 황	매 우 어려운 상 황
⑦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8	1 (0.9%)	17 (15.7%)	13 (12.1%)	50 (46.3%)	27 (25%)

2. 통일문제 차원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인식, 통일의 시기, 통일의 저해 요인, 남북한 정부의 통일노력, 주한미군의 존재, 남북 대화의 선결문제 등에 관한 인식내용과 관련되는 문항 12 개가 선정되었다.

가. 우리사회의 좌경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좌경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 개 문항을 설정했다. 우리사회의 좌경화의 정도에 따라 인식과 좌경화의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 등이다.

1)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

교사들의 우리사회의 좌경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간 우려(44.4%), 별로 우려되지 않음(32.4%), 매우 우려(16.7%), 전혀 우려되지 않음(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1〉에 나타난 전체 반응 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 연령별, 교육경력별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69.1%)가 여자(45.9%)보다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1-50세(76.5%), 51-60세(63.6%), 31-40세(58.3%), 30세 미만(47.1%) 순으로 우려하는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51-60세는 매우 우려하는 교사가 36.4%나 되고 있는데 비해서 30세 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만은 없으며 30대와 40대도 20% 수준이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매우 우려하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나 5년 이내는 약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하는 반응은 교육경력 10년 이상(75.0%)이 가장 높게, 3-5년(40%)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11〉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우 우려	약간 우려	별로 우려되지 않음	전혀 우려되지 않음
⑧ 우리사회의 좌경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	18 (16.7%)	48 (44.4%)	35 (32.4%)	7 (6.5%)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			
						매우 우려	약간 우려	별로 우려 되지 않음	전혀 우려 되지 않음
성 별	남	65.7	7.8	3	$P<.05$	22.6	46.5	25.3	5.6
	여	34.3				5.4	40.5	46	8.1
연령별	30 미만	31.5	18.6	9	$P<.05$	0	47.1	44.1	8.8
	31-40세	33.3				19.4	38.9	30.6	11.1
	41-50세	25.0				20.9	55.6	18.5	0
	51-60세	10.2				36.4	27.2	36.4	0

(계속)

(표 11 , (2)계속)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배 우 우 려	약 간 우 려	별로 우려 되지 않음	전혀 우려 되지 않음
교 육 경력별	3 년 이내	19.5	9.8	9	$P<.05$	0	61.9	23.9	14.2
	3-5 〃	9.2				0	40.0	50.0	10.0
	5-10 〃	30.6				18.2	30.3	42.4	9.1
	10년 이상	40.7				27.3	47.7	25.0	0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5.1	9	$N.S$	23.1	30.8	34.6	11.5
	중 학 교	50				9.3	42.6	40.7	7.4
	고등학교	26				21.4	60.7	14.3	3.6

2) 좌경화와 관련되는 선결문제

교사들이 좌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이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의 민주화(47.2%), 빈부격차 문제(21.3%), 통일안보 관련 교육개선(17.6%), 남북한 관계 개선(13.9%)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12〉 좌경화와 관련되는 선결문제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빈부 격차 문제	정치의 민주화	남북한 관계 개선	통일안보 관련교육 개선
⑨ 좌경화 문제와 관련,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108	23 (21.3%)	51 (47.2%)	15 (13.9%)	19 (17.6%)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빈부 격차 문제	정치의 민주화	남북한 관계개선	통일 안보 관련 교육 개선
성 별	남	65.7	7.6	3	N.S	28.1	46.5	12.7	12.7
	여	34.3				8.1	48.9	16.2	27
연령별	30 미만	31.5	12.8	9	N.S	5.9	55.9	14.7	23.5
	31-40 세	33.3				25.0	50.0	16.7	8.3
	41-50 세	25				37.1	33.3	7.4	22.2
	51-60 세	10.2				18.2	45.4	18.2	18.2
교 육 경력별	3 년 이내	19.5	14.6	9	N.S	4.8	61.9	19.0	14.3
	3-5 〃	9.2				0	70.0	0	30.0
	3-10 〃	30.6				24.2	45.5	18.2	12.1
	10년 이상	40.7				31.8	36.4	11.4	20.4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9.0	9	$P<.05$	26.9	26.9	15.4	30.8
	중 학 교	50				11.1	53.7	14.8	20.4
	고등학교	26				35.7	53.6	10.7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재직학교별($P<.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재직학교별로 보면 좌경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반 이상이 정치의 민주화라고 보는 데 비해서 국민학교 교사는 통일안보 관련교육(30.8%), 빈부 격차 문제, 정치의 민주화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

교 교사는 정치의 민주화 다음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학교 교사는 통일안보 관련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고등학교 교사는 좌경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통일안보 관련 교육개선을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은 좌경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통일안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치의 민주화와 빈부의 격차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며 또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지 다만 통일안보 관련 교육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

교사들의 민족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가능시기를 언제정도로 전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2문항을 선정하였다.

1) 통일의 가능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일은 가능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표-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능하다(63%), 불가능하다(16.6%), 잘 모르겠다(9.3%), 기타(11.1%)의 순으로 나타나 60% 이상의 교사들이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요인별로 분석해 볼 때 51~60세의 교사의 경우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가 똑같이 45.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 통일은 불가능하다에 25%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들도 통일은 불가능하다에 20.4%와 21.4%의 반응을 보여 전체 반응결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 13 〉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결과

(1) 전체 반응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잘 모르겠다	기 타
⑩ 민족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108	68 (63%)	18 (16.6%)	10 (9.3%)	12 (11.1%)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잘 모르겠다	기 타
성 별	남	65.7	1.9	4	N.S	63.4	18.3	7.0	11.3
	여	34.3				62.2	13.5	13.5	10.8
연령별	30~미만	31.5	12.9	12	N.S	61.7	14.7	11.8	11.8
	31~40세	33.3				72.3	8.3	8.3	11.1
	41~50세	25.0				59.3	18.5	11.1	11.1
	51~60세	10.2				45.5	45.5	0	9.0
교 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1.1	12	N.S	47.7	9.5	9.5	14.3
	3~5 〃	9.2				90.0	0	0	10.0
	3~10 〃	30.6				72.7	12.1	6.1	9.1
	10년 이상	40.7				56.8	25.0	9.1	9.1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9.1	12	N.S	73.1	7.7	11.5	7.7
	중 학 교	50				55.6	20.4	7.4	16.6
	고등학교	26				64.3	21.4	10.7	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통일의 가능 시기

교사들은 통일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전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민족통일이 가능하다면 언제?"라는 문항을 제시해 보았다. 〈표-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반응결과는 20~30년후(38.9%), 50년후(21.3%) 10년후(13.9%), 100년후(8.4%), 5년 이내(5.5%), 영원히 불가능하다(12%)의 순이다.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교사들은 통일을 향후 20~5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60%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에 전체 반응결과의 12%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4〉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앞으로 5년 이내	앞으로 10년후	앞으로 20~30년후	앞으로 500년후	앞으로 100년후	영원히 불가능
⑪ 민족통일이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108	6 (5.5%)	15 (13.9%)	42 (38.9%)	23 (21.3%)	9 (8.4%)	13 (12%)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통일의 저해요인

교사들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이라는 문항을 설정 제시했다. 그 결과 〈표-15〉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40.7%), 남북한 상호불신 (23.3%), 이념대립 (20.3%),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14.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를 들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하겠으며, 남북한 상호 불신이나 이념대립보다도 2배 정도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5〉 통일의 저해요인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이념대립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남북한 상호 불신	주변 강대국간의 이해대립	남북한 군비 경쟁	남북한 경제력 격차	6.25 전쟁 체험
⑫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8	22 (20.3%)	44 (40.7%)	25 (23.3%)	16 (14.8%)	0 (0%)	0 (0%)	1 (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남북한의 통일노력에 대한 평가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향한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지금, 미래로 나누어 문항을 제시했다.

1) 지난 40여 년 동안의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태도

"지난 40여 년 동안에 있어 남북한 어느쪽이 더 통일에 적극적이었나?"라는 문항에 교사들은 〈표-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북한 모두 소극적(67.5%), 남한이 더 적극적(20.3%), 북한이 더 적극적(7.5%), 남북한 모두 적극적(3.7%)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표-16〉 지난 40여 년 동안의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태도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결과

(1) 전체 반응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⑬ 지난 40여 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남북한 어느쪽이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8	23 (20.3%)	8 (7.5%)	4 (3.7%)	73 (67.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성 별	남	65.7	9.6	3	$P<.05$	25.4	2.8	5.6	66.2
	여	34.3				13.5	16.2	0	70.3

(계속)

(표 16, (2) 계속)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연령별	30 미 만	31.5	15.1	9	N.S	8.8	5.9	2.9	82.4
	31~40세	33.3				22.2	11.1	0	66.7
	41~50세	2.5				25.9	7.4	11.1	55.6
	51~60세	10.2				45.5	0	0	54.5
교 육 경력별	3 년 이내	19.5	15.2	9	N.S	9.5	4.8	0	85.7
	3~5 〃	9.2				10.0	0	0	90.0
	3~10 〃	30.6				15.2	15.2	3.0	66.6
	10년 이상	40.7				34.1	4.5	6.8	54.6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9.7	9	N.S	23.1	11.5	11.5	53.9
	중 학 교	50				20.4	9.3	1.8	68.5
	고등학교	26				17.8	0	3.6	78.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외 배경변인은 〈표-16〉에서와 같이 성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P < .05$), 남북한 다 소극적이라는 데 대해서 여자(70.3%)가 남자(66.2%)보다 높게, 남자는 남한이 적극적이라 보는 데 비해서 여자는 북한이 더 적극적이라고 나타냈다.

2) 지금 현재에 있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

교사들이 현재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설정한바, 〈표- 17〉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남북한 모두 소극적(47.2%), 남한이 더 적극적(42.6%), 북한이 더 적극적(4.6%), 남북한 모두 적극적(4.6%)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7〉에서 보듯이 전체 반응결과와 다르게 남한이 더 적극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배경요인으로는 성별에서는 남자가 남한이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으며(49.3%), 연령별에서는 41～50세의 경우가 53.9%, 51～60 세의 경우 63.3%, 재직학교별에 있어 국민학교의 경우가 42.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 17〉 **지금 현재에 있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결과**

(1) 전체 반응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 용	N	반 응 구 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⑭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8	46 (42.6%)	5 (4.6%)	5 (4.6%)	51 (47.2%)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성 별	남	65.7	6.4	4	N.S	49.3	4.3	5.6	40.8
	여	34.3				29.7	5.4	5.4	59.5
연령별	30 미만	31.5	17.3	12	N.S	29.4	5.9	2.9	61.8
	31~40세	33.3				36.0	2.8	5.6	55.6
	41~50세	25.0				59.3	7.4	11.1	22.2
	51~60세	10.2				63.6	0	0	36.4
교 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6.1	12	N.S	23.8	4.8	0	71.4
	3~5 〃	9.2				40.0	0	0	60.0
	3~10 〃	30.6				33.3	9.1	6.1	51.5
	10년 이상	40.7				59.1	4.5	3.4	29.5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2.9	12	N.S	42.3	11.5	15.4	30.8
	중 학 교	50				38.9	3.7	5.6	51.8
	고등학교	26				46.4	0	0	5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미래에 있어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입장

"앞으로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은 남한이 더 적극적 (41.6%), 남북한 모두 적극적 (36.2%), 남북한 모두 소극적 (17.6

%), 북한이 더 적극적(4.6%)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8〉에 의하면,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는 것은 연령별($P < .05$)이다. 미래의 통일에 대한 입장에서 '남한이 적극적일 것이다'에 대해서 5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은 '북한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반응한 교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이 모두 적극적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40대, 20대, 30대, 50대 순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 소극적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50대(27.3%)가 가장 높게, 40대(7.4%)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 남한이 더 적극적이거나 남북한 모두 적극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18〉 미래에 있어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입장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전체 반응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일 것이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일 것이다
⑮ 앞으로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8	45 (41.6%)	5 (4.6%)	39 (36.2%)	19 (17.6%)

(2) 배경 변인별 반응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남북한 모두 적극적일 것이다	남북한 모두 소극적일 것이다
성 별	남	65.7	7.1	3	*N.S*	47.9	1.4	35.2	15.5
	여	34.3				29.7	10.8	37.8	21.7
연령별	30 미만	31.5	18.6	9	$P < .05$	26.5	5.9	47.1	20.5
	31~40세	33.3				52.8	8.4	19.4	19.4
	41~50세	25.0				37.0	0	55.6	7.4
	51~60세	10.2				63.6	0	9.1	27.3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2	9	*N.S*	33.3	9.5	38.1	19.1
	3~5 〃	9.2				20.0	0	60.0	20.0
	5~10 〃	30.6				42.5	9.1	24.2	24.2
	10년 이상	40.7				50.0	0	38.6	11.4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8.6	9	*N.S*	38.5	7.7	46.1	7.7
	중 학 교	50				42.6	5.6	29.6	22.2
	고등학교	26				39.3	0	39.3	2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 북한 동포에 대한 친근감

교사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동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이라는 문항을 설정한바, 〈표-19〉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전체 반응결과는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41.85),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28.5

%), 잘 모르겠다(15.8%), 적대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 (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반응결과와 다른 배경요인별 결과는 연령별과 교육경력별 그리고 재직학교별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19〉에서 보듯이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다'에 연령별에서는 41~50세의 경우가 44.5%, 교육경력별에서는 10년 이상의 경우가 38.6%, 재직학교별에서는 국민학교의 경우가 42.4%, 고등학교의 경우가 35.7%의 반응으로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다'에 앞서고 있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질화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전체 반응결과에서나 배경변인별 반응결과에서 '적대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다'에 10.8%~18.5%가 반응을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성별에서 '같은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하다.

〈표-19〉 북한 동포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전체 반응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같은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적대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⑯ 만일 지금 북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느낌이 다음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까?	108	45 (41.8%)	33 (28.5%)	15 (13.9%)	17 (15.8%)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			
						같은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적대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잘 모르겠다
성 별	남	65.7	1.3	3	N.S	39.4	31.0	15.5	14.1
	여	34.3				46.0	24.3	10.8	18.9
연령별	30 미만	31.5	8.3	9	N.S	47.1	23.5	8.8	20.6
	31-40 세	33.3				47.7	25.0	13.9	19.4
	41-50 세	25.0				29.6	44.5	18.5	7.4
	51-60 세	10.2				54.6	18.2	18.2	9.0
교 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0.6	9	N.S	47.6	23.8	19.0	9.6
	3-5 〃	9.2				40.0	20.0	0	40.0
	5-10 〃	30.6				48.5	21.2	16.1	18.2
	10년 이상	40.7				34.1	38.6	15.9	11.4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6.5	9	N.S	34.6	42.4	11.5	11.5
	중 학 교	50				48.1	20.4	13.0	18.5
	고등학교	26				32.1	35.7	17.9	1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바. 주한미군의 주둔

교사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한 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0〉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전체 반응결과는 자주국방능력을 갖출 때까지 (49.5%), 지금부터 단계적 철수 (30.5%), 북한의 남침위협 있는 한 주둔 (16.7 %), 통일될 때까지 주둔 (2.8 %) 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표 - 20 〉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있어야 한다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한 계속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⑰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	3 (2.8 %)	53 (49.1 %)	18 (16.7 %)	33 (30.5 %)	1 (0.9 %)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χ^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있어야 한다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한 계속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성별	남	65.7	17.9	4	$P<.005$	4.2	57.8	19.7	18.3	0
	여	34.3				0	32.4	10.8	54.1	2.7
연령별	30 미만	31.5	27.0	12	$P<.01$	0	47.1	2.9	47.1	2.9
	31-40세	33.3				0	44.4	16.7	38.9	0
	41-50세	25.0				7.4	51.9	33.3	7.4	0
	51-60세	10.2				9.1	63.6	18.2	9.1	0
교육경력별	3년 이내	19.5	27.1	12	$P<.01$	9	52.4	4.8	42.8	0
	3-5 〃	9.2				0	50.0	0	50.0	0
	3-10 〃	30.6				0	39.4	12.2	45.4	30.0
	10년이상	40.7				6.8	54.6	29.5	9.1	0
재직학교별	국민학교	24	11.8	12	$N.S$	11.5	34.6	15.4	38.5	0
	중 학 교	50				1.9	51.8	13	31.4	1.9
	고등학교	26				0	57.1	25	17.9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20〉에서 보듯이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 ($P<.005$), 연령별 ($P<.01$)과 교육경력별 ($P<.01$)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54.1%를,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47.1%를, 교육경력별로는 3-5년 이내가 50%, 재직 학교별로는 국민학교가 38.5%로 나타나 최근 우리사회의 반미성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대로 연령별에 있어 41-50세와 51-60세의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에는 7.4%와 9.1%가 지지를 표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주둔해야 된다'는 반응이 남자 (57.8%)가 여자 (32.4%)보다 월등히 높으며, 여자들은 반 이상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전체로 주한미군의 주둔에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 40대 이상, 교육경력 1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 교사이고 교육경력이 많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다. 여자 교사이고 30대 이하이며 교육경력이 5년 이내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비교적 더 높게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 남북대화에서의 선결과제

교사들이 남북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남북대화에서의 선결과제는?"이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표-21〉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2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류와 협력문제(57.4%), 통일방안 합의문제(14.8%), 이산가족문제(14.8%), 남북한 군사대치문제(11.2%),주한미군 철수문제(0.1%)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선결과제를 '교류와 협력문제'로 보는 교사가 57.4%로 나타나고 있어 남북문제는 점진적으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표-21〉 남북대화에서의 선결문제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 용	N	반응구분(%)					
		이산가족 문제	남북한 군사대치 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교류와 협력문제	통일방안 합의문제	기 타
⑱ 남북대화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8	16 (14.8%)	12 (11.2%)	1 (0.9%)	62 (57.4%)	16 (14.8%)	1 (0.9%)

3. 공산주의 차원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15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은 북한 공산주의의 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남북한 비교 문항 12개, 소련과 동구의 개혁·개방화와 관련된 문항 1개, 북한의 개혁·개방화와 관련된 문항 2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 남북한의 평가

남북한을 민주, 자주, 자유, 평등, 복지, 군사력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았다.

1) 남한의 민주화

교사들이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남한은 민주적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표-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통(35.2%), 대체로 미흡(26.8%), 대체로 긍정(25%), 매우 긍정적(11.1%), 아주 미흡(1.9%)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22〉에서 나타난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005$)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남한의 민주화에 대해 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연령별에 있어 30세 미만의 경우 남한의 민주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44.1%나 되고 있고, 40세 이상의 경우는 긍정적 입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경력별에 있어 10년 이하의 경우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40%를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교사들은 대부분 남한이 더 민주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여자들은 남한의 민주화를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는 13.5%에 불과하다. 이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교사들은 연령이 적은 교사들이 많은 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표-22〉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 주 미 흡
⑲ 남한은 민주적이다.	108	12 (11.1%)	27 (25%)	38 (35.2%)	29 (26.8%)	2 (1.9%)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 검증	자 유 도	유 의 도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 주 미 흡
성 별	남	65.7	17.6	4	$P<.005$	15.5	32.4	33.8	18.3	0
	여	34.3				2.7	10.8	37.9	43.2	5.4
연령별	30 미만	31.5	16.4	12	$N.S$	2.9	20.6	32.4	38.2	5.9
	31-40 세	33.3				11.1	19.4	38.9	30.6	0
	41-50 세	25.0				14.8	37.1	33.3	14.8	0
	51-60 세	10.2				27.3	27.3	36.4	9.0	0
교 육 경력별	3 년 이내	19.5	17.7	12	$N.S$	4.8	14.3	42.8	33.3	4.8
	3-5 〃	9.2				10.0	30.0	20.0	30.0	10.0
	5-10 〃	30.6				6.1	21.2	33.3	39.4	0
	10년 이상	40.7				7.4	13	14.8	5.6	0
재 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5.3	12	$N.S$	19.2	30.8	30.8	19.2	0
	중 학 교	50				9.3	14.8	37.0	37.0	1.9
	고등학교	26				7.1	42.9	32.1	14.2	3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북한의 민주화

교사들의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은 민주적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 경향을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 결과만 다음 〈표-23〉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23〉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⑳ 북한은 민주적이다.	108	0 (0%)	0 (0%)	4 (3.7%)	20 (18.6%)	84 (77.7%)

〈표-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이 96.3%나 되어 북한의 민주화는 대체로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남한과 자주성

"남한은 자주적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여 교사들에게 남한의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바, 〈표-2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보통(35%), 대체로 긍정(29.6%), 대체로 미흡(25%), 매우 긍정적(7.5%), 아주 미흡(2.9%)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반응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표-24〉 남한과 자주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㉑ 남한은 자주적이다.	108	8 (7.5%)	32 (29.6%)	38 (35%)	27 (25%)	3 (2.9%)

4) 북한과 자주성

"북한은 자주적이다"라는 문항을 설정하여 교사들에게 북한의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바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반응 경향은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 결과만 다음 〈표-25〉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25〉 북한과 자주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㉒ 북한은 자주적이다.	108	6 (5.5%)	13 (12%)	22 (20.5%)	33 (30.5%)	34 (31.5%)

〈표-25〉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북한은 자주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62%)이 긍정적 입장(17.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운동권 대학생들의 북한은 자주적이고 남한은 종속적이라는 논리는 허구임을 드러내 주는 것 같다.

5) 남한과 자유

교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남한의 자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은 자유롭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표-26〉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보통(34.3%), 대체로 긍정(33.3%), 매우 긍정적(25%), 대체로 미흡(5.5%), 아주 미흡(1.9%)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반응이 60.3%이고 부정적 반응은 7.4%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남한은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 결과로 분석해 보면 성별($P<.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의 경우 41세 이상이 긍정적 입장(74%-81.8%)으로 전체 반응 결과에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경력이 5년 이상과 고등학교 교사가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최근의 민주화로 인해 넓어진 자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26〉 남한과 자유에 대한 인식의 전체 반응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㉓ 남한은 자유롭다.	108	27 (25%)	36 (33.3%)	37 (34.3%)	6 (5.5%)	2 (1.9%)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성별	남	65.7	13	4	$P<.05$	31.0	38.0	28.2	2.8	0
	여	34.3				13.5	24.3	46.0	10.8	5.4
연령별	30 미만	31.5	10.7	12	$N.S$	14.8	29.4	44.1	8.8	2.9
	31-40 세	33.3				25.0	27.8	38.9	5.6	28
	41-50 세	25.0				37.0	37.0	22.3	3.7	0
	51-60 세	10.2				27.3	54.5	18.2	0	0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8.3	12	$N.S$	4.8	38.1	47.6	9.5	0
	3-5 〃	9.2				20	10	50	10	10
	3-10 〃	30.6				27.3	27.3	36.4	6.0	3.0
	10년 이상	40.7				34.1	40.9	22.7	2.3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2.4	12	$N.S$	38.5	19.2	30.8	7.7	3.8
	중학교	50				16.7	33.3	40.7	7.4	1.9
	고등학교	26				28.6	46.4	21.4	3.6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북한과 자유

북한 동포들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를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은 자유롭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 경향을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므로 전체 반응 경향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27〉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북한 동포들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아주 미흡하다는 부정적 입장이 93%나 되고 있다. 북한을 자유롭다고 보는 교사는 6.8%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은 북한 공산사회가 인민들의 자유가 극히 제한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표-27〉 북한과 자유에 대한 인식의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㉔ 북한은 자유롭다.	108	1 (0.9%)	1 (0.9%)	5 (4.6%)	30 (27%)	71 (66%)

7) 남한 사회와 평등

교사들이 남한 사회의 평등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은 평등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배경변인별 반응 경향이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므로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28〉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교사들은 남한 사회의 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부정적 반응(28.7%)이 긍정적 반응(29.3%)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보는 교사는 30% 미만인 점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28〉 남한 사회의 평등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㉕ 남한은 평등하다.	108	12 (11.1%)	25 (8.2%)	40 (37%)	25 (23.2%)	6 (5.5%)

8) 북한 사회와 평등

흔히 사회주의 사회의 장점으로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평등 정도를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은 평등하다"라는 문항을 설정했다. 〈표-29〉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반응(70%)이 긍정적 반응(7.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등의 구호 뒤에 숨겨진 북한 사회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겠다. 〈표-29〉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볼 때 교육경력별($P<.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 입장이 3년 이내의 경우는 61.6%, 3-5년의 경우는 90%, 5-10년의 경우는 51.5%, 10년 이상은 93.1%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 사회도 불평등하다는 반응이 70%나 되고 있으며 교육 경력 3-5년과 10년 이상 된 교사들은 90%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북한은 북한 사회가 평등사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남한에서 생각하는 평등과는 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북한에는 지배계급인 공산당 간부들과 일반 대중의 생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29〉 북한 사회와 평등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 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㉖ 북한은 평등하다.	108	1 (0.9%)	7 (6.5%)	20 (18.6%)	25 (23%)	45 (51%)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성별	남	65.7	3.1	4	N.S	1.4	7.0	19.7	18.3	53.6
	여	34.3				0	5.4	16.2	32.4	46.0
연령별	30 미만	31.5	13.5	12	N.S	0	8.8	20.6	23.5	47.1
	31-40 세	33.3				2.8	8.3	30.6	19.4	38.9
	41-50 세	25.0				0	3.7	7.4	25.9	63.0
	51-60 세	10.2				0	0	0	27.3	72.7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26.2	12	P<.01	0	9.5	28.6	14.3	47.6
	3-5 〃	9.2				0	10	0	50	40
	5-10 〃	30.6				0	9.1	39.4	15.2	36.3
	10년 이상	40.7				0	2.3	4.6	27.2	65.9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7.5	12	N.S	0	11.5	23.1	15.4	50.0
	중학교	50				0	7.4	14.8	24.1	53.7
	고등학교	26				0	7.1	17.9	28.6	4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 남북 사회와 복지

교사들이 남북사회의 복지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의 국민들은 잘 산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표-30〉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보통(51.4%), 대체로 긍정(27.7%), 대체로 미흡(11.1%), 매우 긍정적(8.3%), 아주 미흡(8.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0〉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볼 때 성별($P<.005$)과 교육경력별($P<.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긍정적 반응이 남자(46.5%)가 여자(16.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가 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경력별로는 '남한의 국민들이 잘 산다'는 데 대해서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것은 교육경력 3-5년(40%)이다.

〈표-30〉 남한 사회와 복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㉗ 남한의 국민들은 잘 산다.	108	9 (8.3%)	30 (27.7%)	56 (51%)	12 (11.1%)	1 (0.9%)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 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 응 구 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성 별	남	65.7	16.2	4	$P<.005$	11.3	35.2	47.9	4.2	1.4
	여	34.3				2.7	13.5	59.5	24.3	0
연령별	30 미만	31.5	19.8	12	N.S	0	14.7	61.8	20.6	2.9
	31-40세	33.3				13.9	36.1	36.1	13.9	0
	41-50세	25.0				11.1	33.3	55.6	0	0
	51-60세	10.2				9.0	27.3	63.7	0	0

(계속)

(표 30, (2) 계속)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22.3	12	$P<.05$	0	19.0	667	14.3	0
	3-5 〃	9.2				10	20	30	30	10
	5-10 〃	30.6				9.1	30.3	45.5	15.1	0
	10년 이상	40.7				11.4	31.8	54.5	2.3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18.5	12	$N.S$	7.7	38.5	53.8	0	0
	중학교	50				9.2	16.7	53.7	20.4	0
	고등학교	26				10.7	39.3	42.8	3.6	3.6

10) 북한 사회와 복지

교사들이 북한 동포의 생활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국민들은 잘 산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표-3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입장이 89%나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31〉 북한 사회와 복지에 대한 전체 및 배경요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용	N	매우 긍정적	반응구분(%)			
			대체로 긍정	보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㉘ 북한 국민들은 잘 산다.	108	0 (0%)	2 (1.8%)	10 (9.2%)	39 (36.2%)	57 (52.8%)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통	대체로 미흡	아주 미흡
성별	남	65.7	11.6	4	$P<.05$	0	2.8	2.8	40.9	53.5
	여	34.3				0	0	21.6	27.0	51.4
연령별	30 미만	31.5	25.3	12	$P<.05$	0	0	26.5	20.6	52.9
	31-40 세	33.3				0	5.6	2.8	44.4	47.2
	41-50 세	25.0				0	0	0	48.1	51.9
	51-60 세	10.2				0	0	0	27.3	72.7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30.7	12	$P<.005$	0	0	33.3	9.5	57.2
	3-5 〃	9.2				0	0	0	40	60
	3-10 〃	30.6				0	6.1	9.1	48.5	36.3
	10년 이상	40.7				0	0	0	38.6	61.4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8.3	12	$N.S$	0	3.8	11.5	38.5	46.2
	중학교	50				0	3.7	13.0	31.5	51.8
	고등학교	26				0	0	0	39.3	60.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과 연령별로는 $P<.05$ 수준에서, 교육경력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국민들이 잘 산다'에 대해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 반응이 더 높으며 긍정적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 반응이 높아져서 40대 이상은 전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 반응은 30대에서 5.6% 보이는 것뿐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북한 국민들이 잘 산다'고 보는 교사는 없는 것 같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3년 이내가 부정적 반응을 67% 보이고 그 외는 90% 가까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육경력 3년 이내도 긍

정적으로 보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남한의 군사력

교사들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의 군사력은 강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바 배경변인별 반응 경향이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므로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3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남한의 군사력은 보통(45.2%), 긍정적 반응(33.6%), 미흡함(21.2%)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강하거나 보통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2〉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매 우 긍정적	대체로 긍 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㉙ 남한의 군사력은 강하다.	108	6 (5.6%)	30 (28%)	49 (45.2%)	20 (18.4%)	3 (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 북한의 군사력

교사들이 북한의 군사력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북한의 군사력은 강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강하다는 반응이 73%나 되고 있다. 〈표-3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전체 반응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여자가 대체로 긍정(48.7%), 보통(32.4%)의 순으로, 남자가 매우 긍정적(49.3%), 대체로 긍정(28.2%)의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교육경력별로는 5년 이하가 보통이다에 30%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보는 교사가 73%나 되고 있고 약하다고 보는 교사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군사력면에서는 북한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33〉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

(1)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㉚ 북한의 군사력은 강하다.	108	41 (37.9%)	38 (35.1%)	25 (23.3%)	3 (2.8%)	1 (0.9%)

(2)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변인별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X^2 검증	자유도	유의도	반응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	보 통	대체로 미 흡	아주 미흡
성 별	남	65.7	12.5	4	$P<.05$	49.3	28.2	18.3	2.8	1.4
	여	34.3				16.2	48.7	32.4	2.7	0
연령별	30 미만	31.5	19.3	12	N.S	20.6	41.2	35.3	2.9	0
	31-40세	33.3				33.3	41.7	19.4	2.8	2.8
	41-50세	25.0				51.9	25.9	22.2	0	0
	51-60세	10.2				72.8	18.2	0	9.0	0
교육 경력별	3년 이내	19.5	18.5	12	N.S	33.3	23.8	38.1	4.8	0
	3-5 〃	9.2				20	50	30	0	0
	3-10 〃	30.6				24.2	51.5	21.3	0	3.0
	10년 이상	40.7				54.6	25.0	15.9	4.5	0
재직 학교별	국민학교	24	9.0	12	N.S	50.0	30.8	19.2	0	0
	중 학 교	50				31.5	40.7	20.4	5.5	1.9
	고등학교	26				39.3	28.6	32.1	0	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 소련과 동구의 개혁 개방과 공산주의

최근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수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공산주의론에 있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련과 동구의 개혁-개방화가 공산주의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하는 문항을 제시한바, 배경변인별 반응 경향이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여 전체 반응 결과만 〈표-34〉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4〉 소련과 동구의 개혁-개방화와 공산주의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새로운 변신이다	종말의 조짐이다	기존 노선의 고수다	좀더 두고 봐야겠다
㉛ 소련과 동구의 개혁, 개방화는 공산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08	68 (63%)	1 (0.9%)	3 (2.8%)	36 (3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변신(63%), 좀더 두고 봐야겠다(33.3%), 기존 노선의 고수(2.8%), 종말의 조짐(0.9%) 순으로 반응을 보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아. 북한의 변화 전망

20세기가 마무리되면서 국제정세의 본질적인 변화의 하나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일어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분단의 극복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그 문항을 설정해 보았다.

1) 북한의 개혁과 개방 전망

"북한은 개혁과 개방화를 추진한 것인가?" 하는 설문에 〈표-35〉에서 보여주듯이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38%), 소련 동구와 같은 개혁-개방 정책 추진(28.7%), 기존 정책의 고수(28.7%)의 순으로 반응을 보여 66.7%가 북한이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표-35〉 북한의 개혁과 개방 전망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 응 구 분 (%)			
		소련과 동구와 같은 개혁과 개방 정책의 추진	점진적인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	기존 정책의 고수	기 타
32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108	31 (28.7%)	41 (38%)	31 (28.7%)	5 (4.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북한의 체제 개혁의 시기

북한이 개혁을 시도한다면 그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본격적인 변화의 시점은?"이란 문항에 대해 배경변인별 반응 경향은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므로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

하기로 한다.

〈표-36〉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북한의 체제 개혁을 김일성 사후 새로운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84.2%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 시점을 김일성의 사망후가 될 것이며, 그 주체는 김정일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36〉 북한의 체제개혁의 시기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김일성에 의해 내년부터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의해서	김일성 사후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기 타
㉝ 북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있다면 그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108	2 (1.8%)	6 (5.6%)	91 (84.2%)	9 (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국민윤리 교육 차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의 한국사회는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부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를 체계화하며 국민들에게 그 원리를 이해케 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국민윤리 교육에 있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사들이 현재의 국민윤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구성, 교육여건, 개선방향 등으로 나누어 문항을 설정했다.

가. 국민윤리 교과의 당면 문제

교사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윤리 교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윤리 교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이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요인별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므로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표-37〉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37〉 국민윤리 교과의 당면 문제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내 용	N	반응구분(%)				
		교과구성	교육여건	교 재	학생들의 반응	기 타
㉞ 현재의 국민윤리 교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8	36 (33.3%)	29 (26.9%)	34 (31.4%)	8 (7.5%)	1 (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3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민윤리 교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과구성(33.3%), 교재(31.4%), 교육여건(26.9%), 학생들의 반응(7.5%)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국민윤리 교육이 교과구성, 교재내용, 교육여건 등에 있어 공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 국민윤리 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국민윤리 교육이 교과구성, 교재, 교육여건 등에 있어 안고있는 문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한바,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교사도 있으나, 대체적인 반응을 백분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윤리 교과 구성(교재내용 포함)의 문제

〈표-38〉 교과구성(교재내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

내 용	백 분 율 (%)
남북한 체제비교가 극단적임	45.3
교과서 내용과 시의의 불일치	21.9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	17.7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결여	9.2
타교과(사회 및 교련) 내용과의 중복	2.5
도덕 내용 경시	2.4
계	100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38〉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국민윤리 교과 구성(교재내용 구성)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남북한 체제 비교가 극단적(북한 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에 45.4%,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충·효의 강조와 지난 시대의 공산체제의 현실 서술 등)에 21.9%, 지나친 정부시책의 홍보에 17.7%,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결여(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이 객관적으로 심도있게 서술되고 있지 않음)에 9.2% 등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2) 국민윤리 교육여건의 문제

〈표-39〉 교육여건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

내 용	백분율(%)
공산권에 대한 자료 부족	40%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28%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탐구학습을 할 수 없음	24%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8%
계	100%

〈표-39〉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국민윤리 교육의 여건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산권에 대한 자료 부족 (특히 북한과 공산권의 변화에 대한 자료 부족)에 많은 (40%)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화의 문제(28%)와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토의 및 탐구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24%)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 방향

〈표-40〉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 방향

구 분	내 용	백분율(%)
교육내용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강화	17.1
	국제화와 미래사회 적응	5.9

(계속)

(표-40 계속)

구 분	내 용	백분율 (%)
교 육 방 법	토의를 통한 건전한 비판	21.4
	정신과 합리적 사고의 진작	
	북한 동포에 대한 일체감 조성	21.4
교 육 자 료	시청각 자료 지원	22.8
교사 재교육	해외 연수기회의 확대	11.4
계		100

〈표-40〉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 방향에 있어 각종 시청각 자료의 지원 (22.8%), 북한 동포에 대한 일체감 조성 (21.4%), 토의를 통한 비판정신과 합리적 사고의 진작 (21.4%) 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교과 구성에서 그동안 비중이 적어온 개인 및 사회윤리에 대한 강화 (17.1%), 공산권의 실상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11.4%),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5.9%)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주도 국민윤리 교사의 정치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정치의식에 관한 개념모형을 설정하여서, 한국의 정치·경제, 통일문제, 공산주의 및 국민윤리 차원으로 나누었다. 각 차원별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수정·보완을 거친 후에 32문항을 확정하였다. 표집은 제주도의 초·중·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8매를 회수하였다.

자료 처리는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평균, 백분비(%), X^2 검증이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의 정치·경제 차원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불안감(73.0%), 민주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88.0%) 한국 정치의 당면과제는 민주화 추진(53.7%),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70.3%), 진보정당의 출현에 대한 지지도(57.4%), 제주도의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개발정책에의 참여(43.4%)와 개발이익의 환수(32.3%),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71.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문제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61.1%), 좌경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문제는 정치의 민주화(47.2%)와 빈부격차 문제(21.3%), 통일의 가능성(63.0%), 통일의 가능시기는 20~30년후 (38.9%)와 50년후(21.3

%) 및 10년후(13.9%) 통일의 저해요인은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40.7%)와 남북한 상호 불신(23.3%) 및 이념 대립(20.3%),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남북한 모두 소극적(67.5%)이거나 남한이 더 적극적(29.3%), 미래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한이 더 적극적(41.6%)이거나 남북한 모두 적극적(36.2%), 북한 동포에 대한 친근감은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41.9%)이거나 외국사람을 만나는 느낌(28.5%), 주한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둔(49.1%)하거나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수(38.5%), 남북대화에서 선결과제는 교류와 협력 문제(57.4%)와 통일방안 협의문제(1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 차원에서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6개 항목에 의한 비교 평가를 했다.

남한은 민주적(긍정적 36.1%, 보통 35.2%), 북한은 민주적(부정적 반응 96.3%), 남한은 자주적(긍정적 37.0%, 보통 35%), 북한은 자주적(긍정적 17.5%, 부정적 62.0%), 남한은 자유롭다(긍정적 58.3%, 보통 34.3%), 북한은 자유롭다(부정적 93.0%), 남한은 평등(긍정 29.3%, 부정 28.7%, 보통 37.0%), 북한은 평등(부정적 70.0%, 긍정적 7.4%), 남한의 국민들은 잘 삶(보통 51.4%, 긍정 27.7%), 북한의 국민은 잘 삶(부정적 89.0%, 보통 9.2%), 남한의 군사력은 강함(긍정적 33.6%, 보통 45.2%, 부정적 21.2%), 북한의 군사력은 강함(긍정적 73.0%, 보통 32.4%), 소련과 동구의 개혁과 개방(새로운 변신 63.0%, 좀더 두고 봐야 함 33.3%), 북한의 변화 전망(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38.0%, 소련-동구와 같은 개혁·개방 정책 추진 28.7%, 기존 정책의 고수 28.7%), 북한의 체제 개혁의 시기는 김일성 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후 새로운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84.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윤리 교육 차원에서는 현재의 국민윤리 교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교과구성 (33.3%), 교재 (31.4%), 교육여건 (26.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구성에서는 남북한 체제 비교가 극단적임 (26.9%), 교재내용이 시의에 맞지 않음 (21.9%), 북한사회의 현실 일방적 서술 (18.4%), 정부시책 홍보 (17.7%) 의 순으로, 교육여건의 문제에서는 공산권에 대한 자료 부족 (40%),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28%), 수업시간 부족으로 탐구수업을 할 수 없음 (2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방향은 공산권의 현실에 대한 시청각 자료 개발 (22.8%), 북한동포에 대한 일체감 강조 (21.4%), 토의 방식을 통한 건전한 비판정신과 합리적 사고의 진작 (21.4%),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강화 (17.1%),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11.4%) 등이다.

이상에서 요약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더욱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주요 과제는 개발정책에의 참여를 꼽고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좌경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태도는 그동안 남북한이 다 소극적이었으며, 주한 미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둔하거나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남한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3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 평등하고 (7.4%), 자주적 (17.5%)이라는 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참 고 문 헌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1982.

고성준·김항원, 「정치이데올로기와 통일」, 제주대출판부, 1986.

김충남, 「정치사회와 정치교육」, 법문사, 1982.

딘 자로스, 김항원·임영철 공역, 「정치사회화」, 지구문화사, 1986.

박용헌, 「해방 40년 :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소흥렬, 「윤리와 사고」, 이화여자대 출판부, 1985.

정세구외, 「도덕과 국민윤리 교과지도법」, 교육과학사, 1984.

정세구, 「국민윤리 교육론」, 교육과학사, 1987.

즈비규뉴 브르진스키, 명윤희 역, 「대실패 : 공산주의 등장과 소멸」, 을유문화사, 1989.

윤천주, 「한국정치체계 :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대출판부, 1979.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국민윤리교사용 지도서」, 1987.

————————, 「중학교 도덕교사용 지도서」,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국민윤리학」, 박영사, 1982.

강근형, "정치문화의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강덕부, "제주도 중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고시홍, "제주도 교원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우태, "대공산권의 변화와 이념교육의 방향," 한국국민윤리학회편, 「북한 체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1989.

김치홍,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반공의식 고찰," 「월암 김종업교수 화갑기념 논총」, 1981.

_____, "한국 대학생의 북한관 연구," 진성 이선근박사 추념논문집, 「민족문화와 국민정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김항원·고성준·김태보, "제주도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제대 논문집」, 제 24 집, 제주대학교, 1986.

길승흠,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변화: 1978 년과 1985 년," 「제 6 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1985.

박용헌외,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이상우, "한국인의 통일의식 변화추세,"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 2 집 (증보판), 서강대출판부, 1986.

이지훈, "한국 정치문화의 기본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 16 집, 한국정치학회, 1982.

신순기,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9 집, 1972.

함의영, "정치의식의 민주화," 「사회과학논집」 제 5 집,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72.

허준혁,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국토통일원, 19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lmond, Gabriel A. and Binhgam Powell, G.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6.

_____ and Coleman, James S. (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New Jersey: Princeston University Press., 1960.

_____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Campbell, D. T.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tin*, No. 47, 1950.

Chung, Sae-gu.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Ph. 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973.

Coleman, James S. 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es, 19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owse, Robert E. and Hughes, John A. *Political Sociology*.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72.

Easton, David and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Macrew-Hill Book Co., 1969.

_____.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1967.

Hess, Robert D. and Torney, Judith V.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7.

Hyman, Herbert.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Free Press, 1959.

Jaros, Dean. *Socialization to Politics*. London: Nelson, 1973.

Jennings, Kennt M. and Richard Niemi. "Patterns of Political Learning." *Harvard Education Review*, 27, No.3 (Summer, 1968).

Kerlinger, F.H.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Second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3.

Kim, C.I. Eugene and You, Hyong-jin. "Political Socialization in Korea: A Pilot Stud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 1969.

Langton, Kenneth P.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_____ and M. Kent Jennings.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 High School Civics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2 (September, 1968).

Litt, Edgar. "Civic Education Norms and Political Indoctr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February, 1963).

Massialas, Byron G.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9.

_____.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2.

Paige, Jeffery M.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Oct., 1971.

Tapper, Ted. *Political Education & Stability*. London: John Wiley & Sons, 19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ABSTRACT 〉

A Study on Political Consciousness of National Ethics' Teacher in Cheju-do

Kang Byung Joon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ung Joon

The purpose of study is to synthetically underst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national ethics' teacher in Cheju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In the level of contents it is classified into Korean Politics-Economy, Unification, Communism, National Ethic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158 teachers questionnaire were delivered, but 108 teachers were actually examined in this investigation.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35 items for answer. The analysis had been processed by means of average (M), percentage, and F check.

As a result, statistics show that most teachers have a good prospect for the Democracy of Korea and in Korea democratization should be achieved mor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d more. They support presidential government. They recognized that the situation of Korean Economy is difficult. Most of teachers worried over the radicalization of ideology and expressed the south and north government in Korea have taken passiv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To the presence of U.S. Army in Korea, they agree with the presence until achieving self-defence capability (49.1%) or gradual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38.5%).

It is worth noticing that only 37% of teachers expressed positive judgment about the democracy and independency of Korea. The most striking is that only 7.4% expressed positive judgement about the equ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and 17.5% agree with autonomy of north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한국정치(통일문제)와 국민윤리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현재의 한국정치 및 경제현실 (전망포함)

1.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① 매우 안정되어 있다.

② 약간 안정되어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안정하다.

⑤ 매우 불안정하다.

2.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크게 민주화될 것이다.

② 다소 민주화될 것이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오히려 후퇴할 것이다.

3. 현재 우리의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 민주화 추진

② 이념대립의 해소

③ 복지정책의 실시

④ 통일기반의 조성

⑤ 기타 ( )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다음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② 간선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③ 의원 내각제

④ 이원 집정부제

5. 진보 정당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기타 ( )

6. 제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 그 해결이 기대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개발 이익의 환수 문제

② 토지소유 문제

③ 개발정책의 참여 문제

④ 농어촌 문제

⑤ 기타 ( )

7.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상황이다.

② 약간 좋은 상황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 중 심각한 것은 다음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경제성장의 둔화

② 계층간 빈부문제

③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④ 노사분규

⑤ 물가불안

⑥ 투기·과소비풍조

⑦ 실업증가

⑧ 원화평가절상

⑨ 토지문제

⑩ 통상마찰

⑪ 기타 ( )

Ⅱ.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1. 우리 사회의 좌경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우려한다.

② 약간 우려한다.

③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④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2. 좌경화 문제와 관련,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빈부격차 문제

② 정치의 민주화

③ 남북한 관계 개선

④ 통일안보 관련 교육 개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민족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4. 민족통일이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① 앞으로 5년 이내

② 앞으로 10년 후에 (2000년께)

③ 앞으로 20 ~ 30 년 후에 (2010 ~ 2020 년께)

④ 앞으로 50 년 후에 (2040 년께)

⑤ 앞으로 100 년 뒤쯤 (2090 년께)

⑥ 영원히 불가능

5 .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념대립

②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③ 남북한 상호불신

④ 주변 강대국간의 이해대립

⑤ 남북한 군비경쟁

⑥ 남북한 경제력 격차

⑦ 6.25 전쟁 체험

6 . 민족통일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지녀야 할 주요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

7 . 남북한의 통일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 지난 40 여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남북한 어느 쪽이 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②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③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④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나.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②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③ 남북한 모두 적극적이었다.

④ 남북한 모두 소극적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앞으로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② 북한 당국이 더 적극적일 것이다.

③ 남북한 모두 적극적일 것이다.

④ 남북한 모두 소극적일 것이다.

8. 만일 지금 북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느낌이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까?

① 같은 남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② 외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③ 적대국 사람을 만나는 느낌일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9.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②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있어야 한다.

③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한 계속 있어야 한다.

④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0. 남북대화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이산가족 문제

② 남북한 군사대치 문제

③ 주한미군 철수문제

④ 교류와 협력문제

⑤ 통일방안 합의문제

⑥ 기타 ( )

Ⅲ. 남북한 비교와 공산체제의 변화

1. '북한사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을 차례대로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① (　　)

② (　　)

③ (　　)

2. 남북한을 다음의 항목별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매우 긍정적	②대체로 긍정	③보통	④대체로 미흡	⑤아주 미흡
1) 남한은 민주적이다.	( )	( )	( )	( )	( )
2) 북한은 민주적이다.	( )	( )	( )	( )	( )
3) 남한은 자주적이다.	( )	( )	( )	( )	( )
4) 북한은 자주적이다.	( )	( )	( )	( )	( )
5) 남한은 자유롭다.	( )	( )	( )	( )	( )
6) 북한은 자유롭다.	( )	( )	( )	( )	( )
7) 남한은 평등하다.	( )	( )	( )	( )	( )
8) 북한은 평등하다.	( )	( )	( )	( )	( )
9) 남한의 국민들은 잘 산다.	( )	( )	( )	( )	( )
10) 북한의 국민들은 잘 산다.	( )	( )	( )	( )	( )
11) 남한의 군사력은 강하다.	( )	( )	( )	( )	( )
12) 북한의 군사력은 강하다.	( )	( )	( )	( )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소련과 동구의 개혁·개방화는 공산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새로운 변신이다.

② 종말의 조짐이다.

③ 기존 노선의 고수이다.

④ 좀더 두고 봐야겠다.

4.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소련과 동구와 같은 개혁과 개방정책 없이는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②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③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④ 기타 ( )

5. 북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있다면 그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① 김일성에 의해서 내년부터

②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의해서

③ 김정일 사후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④ 기타 ( )

Ⅳ. 국민윤리교육 관련분야

1. 현재의 국민윤리교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교과구성

② 교육여건

③ 교재

④ 학생들의 반응

⑤ 기타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교과구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문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교육여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교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효과적인 국민윤리 교육을 위한 개선방향과 관련, 갖고 계신 좋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V. 인적사항 등

1.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세 미만

② 31 ~ 40세

③ 41 ~ 50세

④ 51 ~ 60세

⑤ 61세 이상

3. 교육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년 이내

② 3 ~ 5년 이내

③ 5 ~ 10년

④ 10년 이상

4.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① 국민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